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美, 기독교 박해 심각한 국가로 선정

ICC, 미국 언론과 법원의 행태를 문제점으로 지적

미국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혔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선정 '세계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각한 12개 국가', 일명 '수치의 전당'에 미국이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수치의 전당'을 기획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 제프 킹 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종교 박해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3개국에 멕시코와 러시아, 미국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킹 대표는 "미국의 종교 박해 상황은 멕시코와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종교를 매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국가'에 선정된 멕시코와 러시아에서는 크리스천 박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CC는 미국 언론과 법원의 행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미

국 언론은 크리스천을 인종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관을 고수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편협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은 '제 1 수정헌법 조항'에 근거해 종교의 자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근 판결에 의하면 "크리스천은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표출할 자유가 없으며, 교회와 가정 안에서만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GNPNEWS]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편 2:1,4)

기도 | 사탄에게 삼켜진 이방 땅 같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미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때 미국 교회가 회개하며 애통하여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도 무릎 꿇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 코소보 스켈데라이 공원묘지

제공: WMM

코소보의 독립군 지도자 아템 야샤리의 묘 앞에 참배객들이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듯 쫓겨 앉아 있다. 1998년에 일어난 코소보사태 때 독립군 초대 지도자였던 아템 야샤리는 세르비아군에 맞서 독립투쟁을 하다 그를 포함한 일가가 몰살당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일로 아템은 코소보의 전설적 영웅이 됐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폭격을 맞은

그의 생가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을 영웅으로 삼고 그의 죽음을 이처럼 기린다면 전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얼마나 더 기억해야 할 일인가. 우리는 평생토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

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곧 여호와와 그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77:11~12,15)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7)

왜 당신을 내버려두지 못할까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안 믿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스트레스까지 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안 믿겠다.'는 그 말은 백 수십 년 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했었고, 저 또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좀 더 빨리 믿었다면 좋았을 걸..."입니다.

왜 믿지 않겠다는 당신을 내버려두지 못할까요? 그것은 당신을 사

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상대가 위험하지 않고, 위기에 처해있지 않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그저 아이가 하자는 대로만 할 수 있을까요? 싫다고 울어도 주사를 맞히고, 싫다고 소리 질러도 필요하면 수술을 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위험에 처하거나 문제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죄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또 당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 애쓰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해도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 받아야 없어 집니다. 당신 죄를 대신해 십자가

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예수를 믿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사면을 위해 보석금이나 사회봉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바라십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끊임없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한국 다음세대 선교사, 차세대 선교 바통 잇는다

03 기획 | 현장 리포트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자가 복음이다"

05 인터뷰 | 김관영 목사 "올해 1년간 상설 공연예배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당신에게 복음은 실제인가?

08 종합 | 부즈 인 북스 죽을만큼 순종하라

한국

다음세대 선교사, 차세대 선교 바통 잇는다

헤브론원형학교 졸업생, 열방 곳곳으로 파송



10대 청소년들을 다음세대 선교사로 양성하고 있는 헤브론원형학교의 졸업생이 2년의 아웃리치(단기 선교) 과정을 마치고 현장 선교사로 파송된다.

헤브론원형학교는 1월 6일 서산의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인 용감한 정예병 선교보고 및 수료식을 갖고 1기 수료생들이 대부분 열

방 곳곳의 선교단체에 허입되어 L국, P국, T국 등으로 파송된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문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며,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학교의 선교사파송본부는 매년 배출되는 20대 초반의 수료생들이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현장 선교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새

로운 선교인력 배출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졸업하게 되는 이 학교의 3기 졸업생들은 I국, T국 등으로 파송되어 선임 선교사의 도움 아래 선교사의 기초소양과 또래 다음세대들을 대상으로 복음전파 사역에 투입된다.

이날 선교보고 시간에는 1, 2기 졸업생들이 그동안 해외에서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영어로 복음캠프를 통해 복음을 나누는 등 현장사역 사례를 보고해, 다음세대 선교사로서의 가능성과 강점을 보여줬다.

한편, 이같은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현재 국내 10여 개 교회가 이들을 파송선교사로 받아,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다. [GNPNEWS]

세계

인도, 중국,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 심각한 박해 직면

힌두교가 대세인 인도와 공산국가인 중국,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올해에도 가장 심각한 폭력적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최근 밝혔다.

영국의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표한 '박해 추세' 보고서에 의하면,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 상태에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안전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인도에서는 힌두교 군인들의 공격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내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압박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 폴 로빈슨 대

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중동의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인도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추세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새로운 수준의 기도와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 종교적 난민의 위기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폴 로빈슨 대표는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에 하나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은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고향을 떠난 200만여 명의 새로운 고향이 되고 있다.

ISIS는 이 지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들을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다.

이란의 시아파 무슬림들의 박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하교회에 대한 긴급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북부와 중앙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풀라니 무장대원들에 대한 폭력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다. 이들이 보코하람을 몰아내긴 했지만, 기독교인들의 고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파키스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법과 폭탄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GNPNEWS]

중동

살해를 계획했던 ISIS 지도자, 복음 듣고 개종해

중동에서 여러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인 리딩더웨이(The Leading the Way)의 마이클 유세프 박사가 최근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한 지도자가 회심하여 예수님의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를 통해 밝혔다.

ISIS의 고위 지도자였던 무함마드(가명)는 리딩더웨이에 속한 사역자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TV 방송을 보고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피터(가명)라는 이름의 사역자와 통화를 했고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피터를 죽일 생각이었다.

리딩더웨이의 사역자들은 직접 만나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보안 훈련을 받았지만, 피터는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와의 만남을 허락하심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다.

피터는 무함마드에게 복음을 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 무함마드는 ISIS 교리에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지만, 피터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피터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무함마드는 완전히 개종하게 되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23 ~ 1.5)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시리아 휴전 이행 이틀만 산발적 교전...13명 사망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전면적 휴전에 돌입한 시리아에서 산발적 교전이 이어져 전국 휴전이 이행된 지 이틀 만에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의 민간인과 반군 9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편 휴전이 이행되면서 12월 31일부터 민간인 대피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사회적 기관으로 인간의 욕망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이기로 눈물과 고통이 마를 날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펼쳐지는 곳으로 변화시키소서.

독일 이어 체코도 가짜뉴스 전담조직 설치

독일에 이어 체코도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년 선거를 앞둔 유럽 국가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체코 정부는 급진적 사상이나 음모론, 가짜뉴스를 내세우는 40개 체코어 웹사이트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리의 하나님.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빛으로 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가는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더욱 충만케 하여주시옵소서.

스웨덴, 캐럴에 기독교 언급 '삭제'

스웨덴 학교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포용능력을 기르기 위해 크리스마스 캐럴에 기독교에 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미 온라인 일간지 브라이트바트가 최근 보도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증가하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기념되는 이 날을 다른 하나의 휴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정책들은 허물어지고 영광을 받아내 시켰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중국 최고법원, 어린이 유괴행위 정의 확대...최고 사형 처벌강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어린이·부녀 유괴범죄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 해석'을 통해 어린이, 유아 유괴의 정의를 보다 확대했다고 23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형법은 어린이, 유아 유괴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있고 잔혹한 수단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한 자의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잔혹한 일도 스텝없이 저지르는 죄 된 인간의 추악함을 통제하는 법을 강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의 빛과 소망으로 다음세대를 키워 가시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월 3주 ~ 1월 4주

1월 3주(1.16~1.21)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1.16~20(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16~17,19~20(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1.19~20(06시~18시)

▶전북 전주 / 전주사문교회 (진**) 010-2638-1440

1.20(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1월 4주(1.23~1.28)

1.23~27(14~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23~24,26~27(10시~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1.26(07시~19시)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1.27(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기획 | 현장 리포트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 다양한 복음수련회 열려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음세대 복음기도캠프, K국에서 현지인복음학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복음수련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청소년복음캠프가 각각 진행됐다(왼쪽부터 순서대로).

“십자가 복음이 전세계 열방에서 난 곳 방언으로 전파되는 것을 보는 일은 꿈만 같습니다.”

전세계 각 대륙으로 지난해 말부터 십자가 복음이 다양한 계층과 대상에게 선포되는 것을 지켜본 한 복음기도동맹군의 고백이다. 복음기도동맹군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복음과 기도로 연합하기로 한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최근 다양한 세대의 복음기도동맹군들이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열방 곳곳에서 현지인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각 대륙에서 복음캠프, 복음수련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최근 일어난 동맹군들의 활약상을 모아본다. <편집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프리카에 새 힘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카메룬 등에서 복음캠프와 복음수련회가 열려 복음이 선포됐다. 또 1월 중에는 탄자니아에서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아공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말 4일간의 일정으로 청소년복음캠프가 진행됐다. 현장 선교사와 순회선교단이 연합하여 현지의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련회가 열렸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순회선교단의 공동체훈련기관인 복음사관학교 훈련생들이 담당했다. 당초 수련회 기간이 남아공의 휴일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일정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어로 메시지가 선포된 이번

복음캠프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감각했던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은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훈련의 참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 축복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고백했다. 특히 참가한 훈련생 대부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해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또 볼어권인 카메룬에서는 현지인이 새벽부터 밤시간까지 진행하는 일주일간의 복음수련회가 진행됐다. 50여 명의 현지인 성도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순회선교단의 복음사관학교 훈련생들의 강의가 3중 통역을 통해 진행됐다.

또 십자가 앞에 서는 결단의 시간에 현지인들의 정직하고 결단에 찬 고백은 현장 선교사들은 물론 참석한 훈련생들을 놀라게하며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회복된 나를 선포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 된 실존을 드러내는 것은 아프리카 정서에 쉽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무색하게 한 것이다.

순회선교단 아프리카지부 이규철 선교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야 할 자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죽음을 통과한 이후, 해맑은 현지인들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10여명의 현지인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타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로 자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장의 섬김이들은 모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어로 진행된 L국과 미국 복음캠프

L국에서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강사들이 현지인과 한인 1.5세, 2세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

이번 L국의 복음캠프는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강사를 맡아 L국, 필리핀, 태국의 다음세대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말 4일간 진행됐다.

그러나 훈련생들이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바람에 현지어로 통역하고, 또 한인 다음세대 디아스포라에게는 다시 한국어 통역하여 강의를 진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훈련생들은 복음의 개념부터 복음의 능력과 축복의 원리들을 대부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총체적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태도가 꺾이면서 훈련생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여기 있는 아이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제가 몸담은 학교 선생님들과 이곳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말문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7기 다음세대 복음기도캠프(Next Generation Gospel Prayer Camp)가 지난 12월 말 진행됐다. 캘리포니아의 한 기도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다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훈련생들은 마지막까지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에 집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속주의에 찌든 미주에서도 복음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다음세대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어로 진행된 복음학교

순회선교단이 K국과 한국에서 참여한 복음기도동맹군들과

함께 연합하여 진행된 중앙아시아 현지인복음학교는 12월말에 6일간 진행됐다. 러시아어로 진행된 이 복음학교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는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복음학교의 참여자들 중에는 현재 마약과 알코올중독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었거나 사역자를 준비하고 있는 현지인들도 있어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102명이 들어가 강의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이 온전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기도 했지만 각종 환자들도 생겨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머지 섬김이는 강의실 밖에서 중보기도와 주방 등을 섬기며 이 영광에 동참하였다. [IGNPNEWS]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청소년복음캠프 중에 예배하는 모습(위)과 카메룬에서 복음수련회를 마치고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표현하며 함께 촬영한 사진

기획 | 파키스탄 선교 역사 (2)

불가촉천민 추흐라 계급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부흥’

무슬림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역사는 그리 폭넓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3% 수준. 그것도 19세기 후반 불가촉천민 계급인 ‘추흐라’를 통해 집단개종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후의 상황을 파키스탄에서 사역한 지 30년을 맞는 영국의 프리다 캐리선교사(Church Mission Society 소속)가 정리한 자료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성과 없던 상류층 복음 사역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은 기대와 달리 별 성과가 없었다. 힌두 의대생 타쿠르 다스, 시크교 사업가 디다르 싱, 마울비(무슬림 선생) 악바르 알리 등 몇몇 뛰어난 인재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나 그 대가는 엄청났다. 막대한 사역비와 회심한 현지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족과의 절연, 선교사들은 막심한 핍박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50여 년간 파키스탄 교회는 여전히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선교사들이 낮은 카스트 계층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의 집

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 중 몇몇만이 세례를 받는 데 그쳤다. 그중 상당수는 불가촉천민 계층의 하나인 베를 짜는 사람들이었던 메그(Megs)들이었다. 파키스탄의 카스트는 피부색이나 직업에 따라 크게 승려계급인 브라만, 군인·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 농민, 상인계급인 바이사 및 천민계급인 수드라로 나누어진다. 각 카스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위카스트가 존재하며, 이 카스트제도에조차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이다.

그 이후 1880년대에 들어 역시 불가촉천민 중 하나인 추흐라(Chuhra) 가운데에서 큰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로 인해 진정한 수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추흐라 복음화

청소가 주된 직업이었던 추흐라는 편자브에 있던 가장 큰 불가촉천민 계층으로 188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그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1873년 이전에도 몇 명의 추흐라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역사



▶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추흐라(왼쪽, 출처: World Watch Monitor)와 예배를 드리는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본지 자료사진)

적인 운동은 시알코트(Sialkot, 파키스탄 편자브 동북부 도시) 인근의 시골에 살고 있던 ‘디트’라는 한 문맹 추흐라의 회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을 사고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힌두교에서 회심한 중류 카스트에 속한 농민 자트(Jat) 계급의 나투라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후, 디트는 시알코트에 있는 미국 합동장로교회(American United Presbyterian, UP) 소속 선교사 사무엘 마틴 목사를 찾아가 세례를 청했다. UP의 선교 정책상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몇 주간 정해진 기독교 교육을 받기 전에는 회심



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디트는 완강했다. 마틴 목사는 “이 약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아이 같은 디트가 만약 곧바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부족한 성경지식으로 인해 그가 본 믿음의 불씨가 순식간에 꺼지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디트는 세례를 받은 후 선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골 마을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불가촉천민 디트의 복음 전파

그렇게 고향에 돌아간 디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장사를 하며, 친척과 이웃들에게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디트는 자신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아내, 딸, 삼촌, 그리고 몇 명의 이웃들을 시알코트로 데려와 세례를 받게 했다. 그는 주변의 친척과 이웃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장사를 하며 마을과 마을을 다닐 때마다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눴다. 이렇게 전도에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서 정작 생계수단이었던 가족 장사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를 본 선교사들은 디트가 장사를 하는 것보다 자신과 같은 불가촉천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 그가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1880년부터 매월 얼마의 재정 후원을 했다.

그가 세례를 받고 11년이 지난 후에는 추흐라 계급에 속한 사람들 중 500명 이상이 예수교로 인도되었다. 1900년 즈음에는 절반의 사람들이, 1915년에 이르러서는 시알코트와 그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추흐라 사람들이 디트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이 머시흐끼”(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구루아까쉬 바드’(이하 싸키)입니다. 저는 북인도 편자브주 로플의 한 마을 베흐람뿌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한 후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귀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모든 식구를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중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 조피와 싸쁘나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 매주 주일마다 방문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들은 저에게 성경공부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격려와 열정을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 인도 교회 모습(본지 자료사진)

2010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3년 정규 과정에 들어가기에 어려웠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았지만 1년 이상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주도(州都)인 러크나우에 있는 러크나우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을 떠나 1년 동안 숙식하며 매일 묵상과 기도, 섬김의 훈련을 강하게 받는 학교였습니다. 러크나우신학교 역시 처음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는 타의 모범이 되어 공로상과 학업성적으로

“
한국에서 아주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도로 돌아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
현재 70~100명 정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

1등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월에 집으로 돌아와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 2700스퀘어 피트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러크나우 신학교 교장님(믿음의 성회교회 비숍)이 교회 건축을 위해 3.5랙루피(1랙=10만루피, 약 700만원)를 후원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였습니다.

교회는 20×42피트의 교회 홀과 12×10피트 사무실의 U타입 건축물로 4개월 만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과 재료를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새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세워졌습니다.

2014년 9월 8일에 교회 헌당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인은 70~100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제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NPNEWS]

싸키 목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올해 1년간 상설 공연예배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

문화사역으로 생명을 살리는
김관영 목사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혼 위기의 가정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어느 날 어머니의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의 전도로 온 가족이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교회 성극에서 이삭을 연기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공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김관영 목사(문화행동아트리 대표, 현재 대학로에서 문화예술 선교사로 헌신한 지체들과 함께 2017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더 북(The Book)’ 공연예배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났다.

-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1년간 쉬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공연 예배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지난 2013년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했어요.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때 한 번 더 공연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다 올 한해를 어떻게 순종할까 기도하던 중 복음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임을 새겨 주시면서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지인 대학로와 문화·예술인들까지도요. 사실 이 일은 2001년에 있었던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사역한 교회는 대학로 근처 한 빌딩 지하에 개척된 곳이었는데요, 어느 날 유명한 뮤지컬에 출연하던 배우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배우들 중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으니 공연을 끝낸 후, 기도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요. 사실 공연이 끝나면 집에 가기도 힘들 정도로 배우들은 탈진 상태인데 기도를 하고 싶다니, 정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허락해주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 기억이 오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배우들이 있군요.

“그럼요. 지금 대학로는 200여 개의 극장이 있고, 100여 개의 공연이 올려지지만 목마름으로 헤매고 방황하는 연극계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매일 밤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싶었어요. 주일에 대학로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오후 3시나 4시에 한 차례 공연을 하고 나서 대부분 술집으로 가죠. 밤새 술을 마시면 공연이 없는 월요일은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이것이 대학로의 굳어진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어요. 이들이 저녁에 술 마시러 가는 대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나무 아래’라는 이름의 복음특별집회예요.”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1년간 복음특별집회 열기로

- 그렇다면 이 집회도 1년간 열리나요?

“네, 맞아요.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1년 동안 대학로 극장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공연예배도 하자. 또 집회만 한다고 하면 배우들이 딱딱하게 느낄까 봐 정성스런 밥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혹시 이 이름으로 집회가 열린 적이 있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그 나무 아래’라는 제목의 곡이 있었어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더군요. 세상의 성공과 위선이라는 나무 위에 있는 배우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열매 따는 시늉을 했다고 해요. 돈 많은 그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의 진정한 갈망은 예수님, 참 진리였던 거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학로에 있는 이들을 그렇게 십자가 아래로 초대해 침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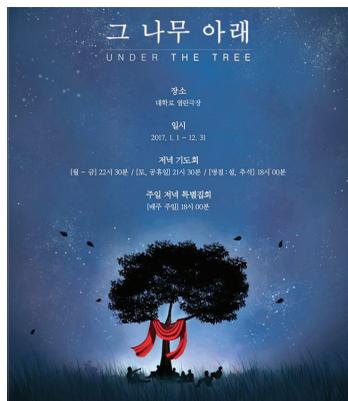
- 매 주일 저녁 특별복음집회와 함께 공연예배도 있나요?

“네. 1년간 370회 정도의 공연을 주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 8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3시와 저녁 7시에 있어요. 올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예요. 정말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공연사에 없었던 일일 거예요.”

- 이런 순종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해보셨어요?

“몇 년 전 2달 정도 쉬지 않고 공

연을 해본 적은 있어요. 사순절을 기념해 그해 2월부터 ‘의’라는 공연을 시작했는데, 공연계에서는 무대를 잘 올리지 않는 기간이죠. 소극장 공연은 막연하게 관객을 기다리기 때문에 정말 피 말리는 전쟁인데, 어느 날 대표 담당 선교사가 관객이 2명밖에 없다며 저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요. 출연 배우들보다 관객 수가 적으면 표를 돌려드리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 저도 보통 때처럼 말했죠. 그런데 저희 식구들이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이 왔는데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겠나



며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래서 저희 공연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어요.”

-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삐끼(호객하는 사람) 목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한때는 대학로에서 엄청 유명한 삐끼였어요(웃음). 공연인들이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고 자신을 표현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고 초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삐끼노릇을 했죠. 그날도 어느 날처럼 거리에서 저희 공연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보시고는 ‘저 사람 완전히 삐끼 목사 다 됐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최고급 음식으로 잔치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초대를 받지 못

하면 올 수 없듯이 공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알지 못하면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불법이라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면 벌금을 물고 연극협회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 문자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연을 보신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저보다 더 활발하게 삐끼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웃음)”

- 목사님은 연극을 배우셨나요?

“아니요, 저에게는 교회와 대학로가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 이듬해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부활절 성극에서 이삭 역할을 맡으라고 하셨어요. 연극이 뭔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삭이 되어 실제 결박된 제가 제단 위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때 성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교회의 모든 연극에 출연하게 됐죠. 중학생이 돼서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통해 더 연극을 배웠죠. 당시 종로 5가 CBS 방송국 2층에 교회를 대상으로 의상도 빌려주고 대본도 살 수 있는 시청각 자료실이 있었어요. 제집 드나들듯 매일 찾아갔어요.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하려는 연극에 맞는 대본을 찾지 못해 제가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저와 제 친구들 8명이 ‘구유선교단’이라는 문화 선교단체를 창단해 활동하기도 했죠. 공연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은 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라 일반 공연 여법에 맞지 않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에서 복음만을 높이는 예술선교단체 출범

- 정말 대단하시네요. 청소년 시절부터 문화사역을 하셨군요.

“방학이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2박3일간 문화부흥회를 열었어요. 중3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죠. 성극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아카펠라를 부른 후, 복음을 선포했죠. 그때 복음 선포자로 함께 했던 분이 저의 이모부가 되었는데, 지금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이세요. 대학교 3학년이 될 무렵 각자 사정으로 팀이 해체됐고, 저는 다시 신학생으로 돌아가 2년간 학업에만 마음을 쏟았죠. 그러다 사역지를 정할 때, 모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문화사역자로 꿈을 펼치라고

하시더군요. 교회에서 ‘말죽거리’라는 이름으로 극단이 창단된 후 10년간 사역을 했어요. 1년에 한편씩 기독교 연극을 무대에 올렸죠. 이런 작품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연극을 발전시키고 싶어 ‘문화기획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공연기획사를 세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oh! my gods!(오나의 잠신들)’라는 기독교 풍자 뮤지컬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슬픈 자화상이 담긴 내용이지요.”

- 의미를 다 알고 제작하신 건가요?

“문제 의식은 있었는데, 그게 저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것으로 쾌락을 느꼈어요. 교계에서 만든 작품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첫 케이스가 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하루에 서너 번씩 하고, 강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저희 팀도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정말 어려웠어요.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욕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훗날 복음 앞에 선 이후에야 알았죠. 결국 대학로의 우상이 되고 싶었던군요. 이런 우상 숭배자였던 저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고스란히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이 되면 온갖 음란 동영상을 뒤적였어요.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난 후 산후조리를 하러 멀리 분가로 갔을 때 젊은 여직원과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후, 2년 반 동안 황폐하게 살았어요.”

- 모든 것이 무너졌네요.

“네. 사역도 가정도 명예도 저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박살났어요. 이모부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많은 연극인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만 3년 만에 공연을 했지만 이모부님이 사역보다는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면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2007년 1월 총체적 복음 앞에 서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자아추구의 극치를 달렸겠죠. 저의 생명의 변화를 본 극단 식구들도 복음 앞에 서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선언하며 십자가 복음만을 높이는 공연을 위해 2009년 5월, 13명의 선교사들의 극단 ‘아트리(Artree)’가 새롭게 출범되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사사시대에 빛난 복음 (1)

당신에게 복음은 실제인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혼돈과 혼란의 사사시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된다. 왕이 정말 없었나?!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실존(實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였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민족은 일찍이 없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다. 그 야말로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이라도 믿어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행복을 얻는 완전한 율법을 받았다. 이 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떠했는가? “그 세대의 사람

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 법도 있었고, 언약도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밀어냈다는 말이다. 곧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고, 그들의 시대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혼돈스러웠다. 시대가 변해도 제 인생 제 핏값으로 죽어 망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다.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스러운 소식을 집어 던졌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복음을 내팽개치고 나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고난의 때에는 생각해야 한다. 그때야말로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이다. 비록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온 흉년일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알려 주시는 주님의 경고음이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일 때가 많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성경 룻기가 시작된다. 남편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다.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기쁨’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기쁨이다!’ 부부가 기가 막히게 만났다. 흉년이 찾아 왔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때를 드실 땐 열면 그 앞에 엎어져야 한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도망간다. 이것이 망하는 첩경이다. 더 어마어마한 흉년을 맞았다. 외적인 흉년을 피하다가 존재적인 흉년을 맞게 된 셈이다. 두 아들 말



론과 기론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 ‘질병’과 ‘황폐’. 가족의 운명이 이름으로 압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니 선민이 자연인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생로병사(生老病死)에 따라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구약의 메시지는 한결같다. “다시 복음 앞에!” 흉년을 맞으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야곱에게 돌아갈 벤엘이 있었고,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던 것처럼 혼돈과 방황 속에서 주님은 어느 때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잡으면 살길, 회복과 치유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에 있고, 인류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사사시대의 혼돈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복음이 변했나? 결코 아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문제다.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다.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됐다는 데 있었다. 복음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실제가 안 된 인생은 헛갈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2016.4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복음과 기도메시지미디어
gospel&prayermedia

“미스바로 모이라”
오디오CD 발매

복음과 기도메시지 시리즈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3-17

오디오CD - A/B 김용의 선교사
Track1 (00:00-28:11)
Track2 (28:11-54:48)
GNM-029CA

오디오CD
(2장 한세트) 6,000원

부제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부흥이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그분만 구하는 것!**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정욕에 눈이 멀어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뿔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짓밟히고 있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고자 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날의 영광은 우리의 어머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자.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요”

- 연극인들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저 은혜였어요. 첫 2년간은 대학로로 출퇴근 했죠.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형제가 자기 생애에서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막 울더라고요. 3년을 약정하고 단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종신으로 선언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른 지체들까지 줄줄이 종신 선교사로 선언했어요.”

- 정말 기쁜 순간이었겠네요.

“부끄럽지만 저는 준비가 안됐어요. 당시 지체들이 저한테 안 물어봐줘서 다행이었지, 너무 이바닥 일이 힘드니까 3년 후에 그만 두려고 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단체를 이끌 때 얼마나 힘드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니라 식구들이 저를 이끌어줬거든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느덧 함께 산 시간으로는 만 6년의 시간이 됐네

요. 한국교회로부터 열방으로부터, 복음기도동맹군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 공동체로 살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복음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갈등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복음으로 풀어 안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이곳이 천국이죠.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수록 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기다림을 배우고, 나를 통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

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배워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최근에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을 통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가 가야할 구체적인 비전 로드맵을 받았어요. 문화사역은 그저 메시지를 전하기 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오픈링 사역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이 사역은 클로징(closing) 사역임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심판 직전 선지자들에게 실제 행동을 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지요. 이제는 예술인들을 선교사들로 부르셔서 열방의 씨앗으로 훈련시키는 예술선교대학(Artist Volunteer Movement, AVM)에 대한 비전이 더 확고해졌어요. 이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선교의 비전을 받고 복음으로 섬기는 마지막 메신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S.Y.





기도를 통해 열방을 기쁨으로 달리는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사 경행수좌? 이수좌어수좌? 메기우다게.”(왜 그렇게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 있던 게 이제는 없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도 방언이다. 조선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파송되었던 제주도. 그러나 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조상신을 섬기는 제례 문화는 흔한 일상이자 삶이었다. 어렸을 때 마당에서 형제들과 놀다 방에 들어왔을 때, 아주 커다란 구멍이 몇 마리가 안방에 뒹어져 있는 게 너무 무서워 한참을 달려 아버지 회사로 갔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조상신 섬기다 죽어 지옥에 떨어졌을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른다. 죄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앞에 서게 된 사람은 누구나 그럴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기적을 마치 오래전에 울며 봤던 감동적인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마주할 기회가 주어졌다.

가끔 허리가 아프고, 걸을 때 불편

하게 걷는 것 빼고는 특별히 아픈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엉덩이 쪽 통증을 시작으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만큼 되었다. 이런저런 검사와 치료 끝에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유전성 운동실조증인 강직성하반신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다. 같은 유형의 병자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아주 양호한 편이었다.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것처럼 내가 바로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수박에 없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노름과 빚으로 도망하다시피 떠난 제주도. 그 후에도 술과 노름, 폭행으로 변하지 않던 아버지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술장사를 하게 되었던 어머니.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느덧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일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10여 년을 보내면서 과거의 나와 육신의 가족들의 모습들을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니



나의 슬픔과 고통,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싶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시간이 흘러 30년 만에 다시 이곳 제주도에 와서 불신자인 가족과 함께 일 년을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어쩔 그렇게 바뀐 게 없는지. 10년 전의 시간이 마치 어제 일로 내게 확 다가왔다.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열방을 매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다. 가족의 문제가 열방의 문제요, 가족의 필요가 열방의 필요임을 보며 늦은 밤,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혼이기에, 나의 기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다. 도저히 꿈꿀 수 없던 일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차례로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 복음훈련을 받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고, 먼 길을 오고갔던 소중한 모든 시간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 땅 끝까지 파송하셔서 일하신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된다. 나는 다시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와 사역의 자리에 돌아와 서 있다.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나

도 무엇이 바뀌었을까? 한 가지 뚜렷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바로 ‘은혜’다. ‘은혜를 알게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인치듯 마음에 새겨주셨구나.’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집에서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운동장이었다. 이제는 내가 그런 곳을 예전처럼 신바람 나게 달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기쁨으로 달리는 용사처럼 이제는 열방을 그렇게 달릴 수 있겠구나. 복음이 실체가 되고, 기도가 실체가 되는 축복이 더욱 사모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을 더욱 누리려고 싶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제주도. 그 땅의 구원을 위해 매주 말씀기도를 하기 위해 오가는 차 안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한다.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GNPNEWS]

양동원 선교사



“성경을 한 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와 헤매던 영호는 처소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성경책과 약간의 식량을 마련하여 북한으로 돌아갔다.

병에 걸린 친구에게 전한 복음

고향에 돌아간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 친구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하던 영호는 친구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게 뭐냐고 물어왔다. 친구가 호기심을 보이자 그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비밀로 해야 돼!”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친구와 자기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친구의 귓가에 입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친구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란 듯 했지만, 영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영호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어머니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영호를 집으로 불렀다.

영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자네가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냐?”라고 물었다. 그 말에 놀란 영호는 병색이 질

은 친구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예.”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수님 이야기도 내 아들에게 했는지?”하고 재차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영호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자네, 그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영호는 어물어물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삼위일체가 뭔데요?”하고 물었다.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네.” 어머니는 차근차근 설명을 마치고는 “그런데 자네,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게.”라고 말했다.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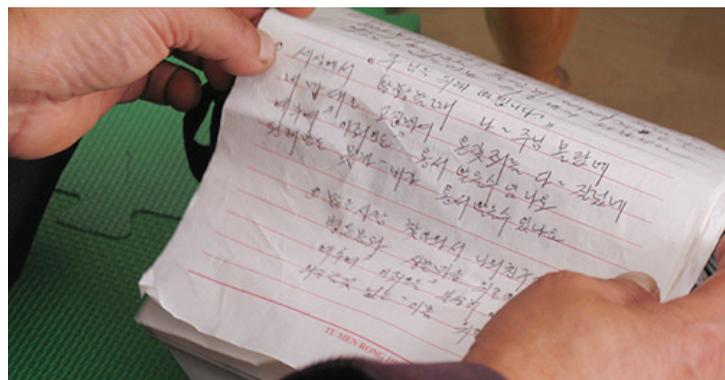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성경 한 권만 구해다 주게나! 성경을 한 권 가질 수 있기를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네!”라고 말하며 영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성경을 갖기 위해 기도

영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어... 우리에게 성경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면 성경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어머니는 밖에 있던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했다. 그리고 “자네가 우리 며느리에게 어디로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게.”라고 말하였다.

영호의 설명을 들은 며느리는 그 즉시로 성경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리고 일꾼들이 마련해 준 큰 글자 성경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사방에 감시의 눈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안 후스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주의를 지지하며 크고 웅장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다. 하지만 진실한 신자들은 천막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머금었다. 그래도 그들의 영혼에는 날로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었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화형이라는 끔찍한 평결을 받고도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의 모든 죄목들을 나는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습시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난 원리는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역사적 신앙)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썼고, 가르쳤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앤드류 머레이의 <죽을만큼 순종하라>

이제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다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난 후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거나 깨닫기만 해도 흥분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다. 말씀 한 구절 속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 맹인이 되어 볼 수 없던 십자가의 진리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의 감격은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다.

만약 '순종'이라는 주제도 깨닫는

것, 거기까지라면 즐거운 모험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그만큼 내 삶에서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에 관한 교훈들에 주목하며 절대적인 순종을 말한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주신 명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미덕은 순종이었다. 창조주의 명령과 권위만큼 숭고한 것이 순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순종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았는지 잘 알고 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들이 생명 나무에 들어가며..."라는 구절을 주목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닫아 놓았던 태초의 불순종, 그러나 거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한 마지막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임을 말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구속 사역이 순종을 제자리로 회복하는 사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머레이는 나의 마음에 순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자문해볼 것을 요청한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묵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그 결핍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복음의 삶에 실패하는 온갖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 실패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놓치게 하는가.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머레이는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통해 순종의 원리를 찾는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가끔씩 한 번의 순종 행위가 아닌 전 생애를 사로잡고 있던 정신이

있으며 그분의 순종은 기쁨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갈망하셨던 음식이었다.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며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 죽음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다준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죄악 된 본성이 불췌 불췌 솟구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것뿐이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이 순종은 하나님 나라, 지상대명을 향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은근한 두려움

이 있다. 이들은 단지 양심을 편하게 할 정도의 순종을 한다.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을 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 머레이는 이런 옛자아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변명에 반기를 든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 수 있도록 나 자신과 내 생명을 모두 내드릴 것이다!"

나 역시 겉으로는 순종하나 중심으로는 주를 따르지 않았던 모습과 이해되어야만 순종했던 영역을 회개했다. 순종이 가르쳐준 최고의 교훈은 죽음이었다.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흥을 위해 죽도록 순종할 것을 서약한다. [GNPNEWS]

한보현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노(No)'하지 못하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지 못한 사역으로 부르심은 긴장과 떨림 그 자체였다. 비장한 각오로 임한 내게 새로운 사역을 가르쳐주시길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나를 복음 앞에 세워주셨다.

첫 사역으로 허락된 선교훈련학교에서 훈련생 3분의 1이 중도 포기하고, 모든 면에서 나오는 다른 지체와 연합하는 과정에서 내 안의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이것을 죽을 만큼 어려워하는 나의 이상한 반응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다. '아니다', '싫다' 이런 부정적인 종류의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급기야는 그들이 나에게서 떠난다는 가치관이 너무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는 옛사람, 자아의 반응이었다. 이런 나 자신을 거슬러 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주님은 이런 나의 믿음 전체를 부인하셨다. 인정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내 믿음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 내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99%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1%, 딱 한 가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준 게 아니란다. 왜냐하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안에 너의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란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받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던 내용이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주님의 진단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갔다.

그리고 이런 나를 애써 부인하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걸음을 떼 보려 했지만 내 존재와 딱 붙어 있는 이 옛사람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을 붙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주님 앞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 비참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게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받으렴.'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믿어 보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의 속제가

풀렸다. 다음 날 아침 목상을 통해 주님은 내게 한 가지 초청을 하셨다. '나의 사랑을 전부로 받을래?' 이 '전부'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였다.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는데,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 하나라도 빠버리면 그 사랑에 전부로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주님의 진한 사랑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내 안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매여 선하고 착한 모양의 말과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나. 이 옛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고 두려움 없이 내가 죽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니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믿음을 쓰고 큰 승리를 이루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동일한 믿음이 필요했다.

복음의 능력에 100% 참여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GNPNEWS]

박연희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12. 22 ~ 2017. 1. 5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사회 김성훈 김유남 김은영 김정대 박숙자 신봉중 안기숙 원종관 이복길 이복순 이 순 이영심 이정희 이지영 이현희 조경미 조남미 조명숙 조형광 주유순 무명

교회 및 단체
서경산업 감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김화제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성경언어훈련학교 웹 시은교회 마하나임신대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선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트리니티소프트 평안교회 행복한우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